HEY HOLDER

주주 서한

에치에프알 주주연대는 주주와 회사간 상생의 목적으로 주주활동을 시작해 현재 헤이홀더 주주 인증을 통해 532명의 주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1,686,688주, 12.5%).

기본적으로 주주연대는 주주 권리를 회사 측에서 인정하고, 주주친화적 기업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주로서 정당하게 IR 활동과 주주환원의 강화를 회사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말로만 주주친화,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 보이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24일 주주총회 당시 참석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월 내 IR 채널을 통해 ▽가이던스 및 향후 사업비전 공유 ▽자사주 매입/소각 ▽분기 배당 검토 ▽ IR 강화 대책 마련을 공지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5월 내 대표이사 IR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해외 사업 현황 공유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약속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검토만 하였고 현재 주주들에게 지켜진 약속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현재 주가는 52주 신고가 35,500원 대비 약 50% 하락했으며, 현재도 52주 신저가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에 에치에프알 주주연대는 회사와 주주간 상생을 위해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염원을 담은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는 회사에 주주제안을 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으나 회사는 2024. 3. 21.에서야 안건들을 상정하면서 주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에치에프알 주주 여러분. 주주연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회사가 동반자로서 주주연대를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